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0.20원 하락한 1187.30원에 마감
------	-----------------------------

14일 환율은 전일대비 0.20원 하락한 1187.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50원 상승한 1188.00원에 개장했다. 위험선호심리 훼손에 소폭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결제수요 유입과 코스피 급락에 상승 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들어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되자 환율은 반락한 뒤, 하락폭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장 막판 하락폭을 회수하며 전일대비 0.20원 하락한 1187.3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44.19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8.00	1189.50	1185.60	1187.30	1187.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8.81	1046.08	1038.81	1044.0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9.80	1363.57	1353.16	1355.2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3	1.53	2.4	2.79
	결제환율(수입)	0.57	2.52	3.9	5.2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강세 재개...1,19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7.30원) 대비 2.85원 상승한 1,191.1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하였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시기에 인접했음을 인정하는 등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연준이 올해 4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8.88bp 상승하며 1.79%까지 상승했다. 이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금일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은 환율에 상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7.00 ~ 1193.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451.2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85원 ↑
	■ 美 다우지수 : 35911.81, -201.81p(-0.5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9.9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1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